


보 도 자 료

	◆ 2025. 9. 10.(수) 배포	
	◆ 총 3쪽 (본문 2쪽, 붙임 1쪽)	
	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.	
	김현철 원격탐사빙권정보센터장 ☎ 032-760-5335	
강민구 홍보실장 ☎ 032-770-8631		
김창석 홍보실 선임행정원 ☎ 032-770-8637		

북극항로를 정확히 보려면? '우리' 위성을 갖자

정희용 의원실 · 매일신문 · 극지연구소

'북극항로 운항 지원을 위한 초소형위성 개발사업 토론회' 개최

- 정희용 국회의원(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, 국민의힘 사무총장·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)은 매일신문(대표 이동관), 극지연구소(소장 신형철)와 함께 11일(목)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'북극항로 운항 지원을 위한 초소형위성 개발사업 토론회'를 개최한다고 밝혔다.
- 이번 토론회는 북극항로의 개척·운영에 필수적인 정확한 해빙 정보 확보와 데이터 독립성 강화를 주제로, 초소형위성 개발의 필요성과 추진 전략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.
- 북극항로는 기후변화로 북극의 해빙이 녹으면서 열린 항로로, 동북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최단 항로로서 경제적 가치와 전략적 중요성이 크다. 북극 해빙은 빠르게 변화하고 기존 관측망으로는 실시간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, 해빙 관측을 목적으로 한 초소형위성은 북극항로 안전 운영과 기후변화 감시에 꼭 필요한 수단으로 평가된다.

- 세미나에서는 김현철 극지연구소 원격탐사빙권정보센터장이 초소형위성의 현황과 활용 범위 등을 소개하고, 이어 선종호 경희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학계·연구계·정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된다.
- 정희용 국회의원은 "작년 11월 북극항로 시리즈 1차 <북극항로 거점항만 포럼>에 이어, 2차로 <북극항로 운항 지원을 위한 초소형위성 개발사업 토론회>를 개최하게 됐다"며, "이번 토론회는 독자적인 한국형 초소형위성 확보를 통해 ▲북극항로 상 유빙 회피를 통한 안전 운항, ▲대기 관측을 통한 오염물질 정량화, ▲생물 군락이 분포한 생태계 보전 등을 가능토록 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"이라고 말했다.
- 극지연구소 신형철 소장은 "초소형위성은 북극항로 관측뿐만 아니라 북극의 변화 전반을 탐지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다목적 연구 자산이다. 이번 세미나가 우리의 북극 연구역량을 강화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"라고 전했다.
- 이번 세미나는 현장 등록을 통해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, 자세한 사항은 극지연구소 홈페이지(www.kopri.re.kr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붙임 1. 초소형 위성 기반 북극항로 전략 토론회 포스터

북극항로 운항 지원을 위한

초소형위성 개발사업 토론회



2025. 9. 11. (목) 16:00~17:30

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

좌장 선종호 | 경희대 우주과학과 교수

발제 김현철 | 극지연구소 원격탐사방광정보센터장
초소형위성 사업의 추진경위 및 준비 현황

토론 김해동 | 경상국립대 항공우주공학부 교수
박진구 | 극지연구소 선임연구원
안형준 | STEPI 우주공공팀장
성석인 | 해양수산부 극지정책팀장
장태성 | KAIST 인공위성연구소 책임연구원

주최  정희용 국회의원 |  매일신문
(국민의힘 사무총장,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)

주관  KOPRI 극지연구소